

# 세주주보

연중 제24주일

2020. 09. 13. (가해) 제2232호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태 18,35)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클로드 비뇽, 1629년, 프랑스 투르 박물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총



하양본당 주임 | 김성태 엠마누엘 신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를 묻는 베드로에게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정한 종의 비유’로써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비유 안에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 대 ‘인간의 옹졸함과 비정함’이 잘 대조되어 있습니다.

비유에는 1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1탈렌트는 당시의 로마 화폐로는 6천 데나리온이었는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따라서 품삯을 5만원으로 계산해도, 1만 탈렌트는 약 3조원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6천만 데나리온×5만원) 로마시대의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쓴 『유다의 고대 풍속』이라는 책에 따르면, 기원전 4년에 유다와 이두메아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총액이 600탈렌트(약 1,800억)였고, 갈릴래아와 페레아에서는 연간 200탈렌트(약 600억)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1만 탈렌트는 개인이 진 빚으로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약 500만원입니다. 3조원과 500만원! 과연 이게 비교가 됩니까? 따라서 3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단돈 500만원 빚진 사람을 못살게 굴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너무나 파렴치한 태도입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인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비유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부채를 탕감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만 탈렌트나 빚진 종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 작은 잘못을 범한 형제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러한 하느님의 엄청난 은총이 작용하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1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도 반드시 거기에 보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선행과 공로에 따라 하느님의 은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엄청난 은총을 묵상하고 감사드리며,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형제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고 많은 선행과 공로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느님께는 미미하고 하찮은 것일 지라도 말입니다. **궤본**

# 통합 생태론

교구 비서실장 |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몇 년 전에 사회정의에 관심이 많던 나이지리아 출신 신부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보호하는 일과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산림을 개발하는 일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오늘 먹어야 할 빵이 먼저입니다.”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이 사람을 돌보는 일과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환경 위기와 사회 위기는 다른 문제처럼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걱정하는 환경 운동가들과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하는 사회 운동가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통합 생태론’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생태론에 ‘통합’이라는 말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그만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회의 생태적 담론이 파편화된 형태를 넘어 포괄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 생태론은 자연환경을 경제, 사회, 문화,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생태 위기는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이기에 자연 생태뿐만 아니라 사회 생태와 인간 생태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지요. 통합 생태론적 관점에서 볼 때 “평화와 정의, 그리고 피조물 보호는 서로 철저히 연결된 주제”이고, 빈곤 퇴치와 소외된 이들의 존엄성 회복과 열대우림 보전은 개별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한 인간 생명을 수호하고, 우리 몸을 존중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하는 일들도 통합 생태론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런 점에서 통합 생태론은 단순히 ‘녹색’ 이야기만이 아니라 ‘빨주노초파남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저는 통합 생태론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깨닫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단순히 기온이 오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생태계 파괴는 몇몇 생물종의 멸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이런 문제들이 결국 신종 감염병을 가져오고,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실업과 경제난과 사회 혼란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통합적으로 배웁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변화의 규모를 볼 때, 문제의 각 부분에 대한 별도의 답을 찾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교황님의 이 말씀에 다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연계 자체의 상호 작용과 더불어 자연계와 사회 체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며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요컨대, 사회정의와 생태정의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복지 증진에 힘쓰는 것이 곧 생태적인 일이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일이 결국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낙태를 반대하면 ‘보수’, 기후 변화를 막자고 하면 ‘진보’라고 하지만, 인간 생명 운동과 환경 운동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로**

## 주일이나 대축일 미사 때 왜 ‘사도 신경’만 바치나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언제 바치나요?

미사 때 사용되는 신경(신앙 고백)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과 ‘사도 신경’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주일과 대축일과 지역의 성대한 축제 때에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고백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신경 역시 필요에 따라 미사 전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사도 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메시지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상징적 용어들로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 신경입니다. 사도 신경은 초대 교회 때부터 세례성사 예식 때 사용하였고, 교회 안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기에 사도들의 권위를 부여받아, 2세기 무렵 오늘날과 같은 형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신경 자체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상징이자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세기 즈음에 교회는 신앙에 대한 수많은 이단과 이교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신성까지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이에 맞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에 대한 교리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두 공의회에서 결정된 신앙 조문들을 정리하여 하나의 신경이 만들어졌고, 이 공의회를 따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사 전례 안에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보다는 ‘사도 신경’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신경’이 상대적으로 더 짧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신경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입니다. 요즘에는 미사 전례 안에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바치는 본당공동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과 ‘사도 신경’ 모두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정수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경을 모두 보존하고 신앙 안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 주교회의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미사 전례』



## 정산필 베드로 (1739?~1799년)

충청도 덕산의 양인 집안에서 태어난 정산필(鄭山弼) 베드로는, 본래 성격이 괄괄하고 힘이 비상하여 모두가 무서워하였다. 그러나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로는 아주 겸손하고 온순해졌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였다.

1794년 말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베드로는 신부를 찾아가 직접 그로부터 세례를 받는 행복을 누렸다. 또 이후에는 내포 지역의 회장으로 임명되어 자신이 맡은 직분을 다하였다. 기도와 독서를 부지런히 하였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격려하는 데 전심하였다.

베드로에게는 박취득 라우렌시오, 원시보 야고보, 방 프란치스코 등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왕래하면서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다. 그러다가 1797년에 일어난 정사박해 때 각각 자신들이 살던 마을에서 체포되어 모두 순교하였다.

정산필 베드로가 체포된 것은 1798년이나 1799년이었다. 그는 덕산 관아로 끌려가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용감하게 천주의 가르침을 증거하였다. 또 옥에서는 함께 갇힌 동료들을 격려하였으며,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을 하면서도 전혀 동요하는 빛이 없었다.

사형 집행일이 되자 베드로는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음식을 받게 되었다. 이때 그는 동료들에게 같이 먹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천주께서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음식이니,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먹읍시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요.”

그런 다음 베드로는 형장으로 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799년으로,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 내지 60세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 오늘의 전례

<b>제 1 독 서</b>	집회 27,30—28,7	<b>제 2 독 서</b>	로마 14,7-9	<b>복 음</b>	마태 18,21-35.
<b>화 답 송</b>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b>복음환호송</b>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b>영 성 체 송</b>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목사례 및 제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세상의 변화** 속에 우리 신앙생활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공동체 미사가 중단되거나 미사가 재개되더라도 **제한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교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했던 본당공동체(기관, 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나 제안하고 싶은 바를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을 보내실 때 본인의 연락처(H,P)를 알려주시면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 2020년 9월 21일(월)

보내실 곳 :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국

① E-mail : dgsamok@hanmail.net

② FAX : 053-250-3054

③ 주소 : 우) 4196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대구대교구청 별관 사목국

문의 : 053-250-3051



나 또한 자비롭게

박성규 엘리지오



## 미사 안내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14일(월) 11:00 계산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9월 14일(월) 11:00 죽도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9월 14일(월) 11:00 용강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9월 19일(토) 11:00 성모당

## 성소 | 피정

###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 천주성요한의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9.19(토)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010)3800-1579

### 10월 성주 평화계곡피정의집 향심기도 피정

1박 2일: 10.31(토)~11.1(일)

2박 3일: 10.16(금)~18(일)

10.23(금)~25(일)

대상: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10명 선착순)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010)3422-7587

## 교육 | 모집 | 기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505-10-218514-9  
문의: 650-3529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

## 2020년 2학기 성경 및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접 수 : 9.18(금) 접수마감 | 장 소 :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남산동) 강의동 2층

수강료 : 과목당 70,000원(2과목 이상 신청시 과목당 60,000원) | 문 의 : 가톨릭신학원, 660-5105

시간	화	수	목	금
10:00 ~ 12:00	요한계문헌	철학과 그리스도교	철학	신약성경입문
	동양고전	사도바오로		
14:00 ~ 16:00	신학 첫걸음	신론	시편과 지혜문학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만남
	마리아론		교회론	역사서
19:30 ~ 21:30	가톨릭교회 교리서해설	예언서	가톨릭서간	

※ **Daum** KakaoTalk **P** 플러스친구 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을 검색하세요.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http://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10방향 200m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복현연합내과**  
BOKHYUN UNION INTERNAL MEDICINE  
건강보험공단 검진 (5개암)  
위·대장 내시경·용종절제  
고혈압·당뇨관리 우수 의료기관 선정  
전문·의약박사 | 최익민(레오), 이서우(D.안드레아)  
북현오거리 신한은행 옆 건물 2-5층 T. 053 943 9380

(초혼, 재혼)  
**가나혼인잔치**  
25년 전통의 가톨릭전문결혼정보회사  
전국대표전화 : 1566-6205  
대구 : 070-4790-3888  
서울 : 02-3141-3888  
부산 : 051-817-3887

**SM 수맥홍집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 1588-5335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http://www.kisaneye.co.kr)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충렬방향 20m)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집수리 및 인테리어  
김원(토마스) 010-5623-9001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노약망(요한) 신부  
1902년 9월 13일

교육 | 모집 | 기타

2020년 2학기 신학성경과정 수강생 모집

성경입문, 신약성경과정, 구약성경과정, 신학입문, 신론, 철학, 마리아론, 동양고전, 그리스도교와 불교, 철학과 그리스도교 등 / 개강: 9.1(화)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대구SOS어린이마을

초등 공부방 교사 모집

업무: 월~금 16:00~19:00  
자격: 교직 정년 퇴임자  
마감: 9.15(화) 18:00  
문의: 983-3154

학산셋별학교 국어 중등교사 모집

활동일시: 목 14:00~16:00  
내용: 검정고시 시험대비 교육(자원봉사)  
대상: 전·현직 교사 및 강사, 관련학과 전공자 및 졸업자 / 인원: 1명  
신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634-7230

부부 둘만의 힐링 여행 대구ME 주말

380차: 9.25(금)~27(일)  
381차: 10.23(금)~25(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CLC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영성 강좌

일시: 10.7~11.11 매주 수 19:00~21:00  
장소: 교구청 교육원 나동 4층  
주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랑의 힘, 사랑의 질서와 영적 훈련  
수강료: 8만원 / 문의: (010)8441-8011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수시 가능 /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 (010)7470-7966

꽃동네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 모집

가톨릭 보건·복지·상담심리 특성화 대학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원서접수: 9.23(수)~28(월)  
모집: 사회복지, 상담심리, 간호학과  
문의: (043)270-0100

목포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수시 모집

취업률 전국 4년제 3위, 광주·전남 1위  
원서접수: 9.23(수)~28(월)  
모집: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문의: 입학처, (061)280-5150

가톨릭상지대 2021학년도 수시1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1차: 9.23(수)~10.13(화)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9.21~23 / 10.19~21 / 10.30~11.1  
장소: 제주성지 7곳(신부님 성지해설)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경제연합회  
문의: (064)805-9890

채용 | 안내

교구 전산실 직원 채용

인원: 1명  
상세: 교구 홈페이지 참조  
문의: 교구 전산실, 250-3092~4

동명어린이집 조리사 채용

자격: 조리사 자격증  
문의: (010)3976-685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정규직) 채용

분야: 사무직(1명), 조리직(1명)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림 참조  
마감: 10.30(금) 14:00 접수 서류까지  
문의: 이메일 [mano@cbck.kr](mailto:mano@cbck.kr)

교구장기 파크골프대회 취소

11월 9일(월) 예정되었던  
교구장기 파크골프대회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취소되었습니다.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7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교),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옥(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공장직영도매(동고령C)  
**삼우싱크**  
이용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대구 용산점, 칠곡 구암점  
싱크, 불박이, 신발장, 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010-2866-0277 | 010-3336-9567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 (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우보한의원**  
백반증 | 아토피 | 두드러기 | 건선  
지루성피부염 | 기타피부질환 | 비염  
대구시 중구 명덕로 193 코스모스빌딩 7층  
원장 박재영(루카) 실장 김소영(유스티나)  
TEL. 053)427-8080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가람소방방재(주)**  
◆ 소방시설점검 ◆ 소방안전관리대행  
◆ 종합정밀점검 ◆ 소방관련기술교육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앤비비즈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